

삼성SDI 006400

2Q22 실적 Review, 설명회 Q&A 정리

반도체/디스플레이
Analyst 김선우
02. 6454-4862
sunwoo.kim@meritz.co.kr

2Q22 영업이익 4,29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 상회 (+33.1% QoQ, +45.3% YoY)

삼성SDI는 2Q22 영업이익 4,290억원 (영업이익률 9.0%)으로 최근 올라간 시장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 소형전지와 전자재료 수익성이 견조한 가운데 중대형전지 역시 Gen5 비중 확대 발생하며 이익 개선을 견인. ESS 역시 미주 향 전력용 판매가 증가하며 실적 개선

3Q22의 경우 전사 매출과 이익 공히 성장이 예상됨. 소형전지는 매출이 20% 이상 성장하며 이익률이 소폭 개선. 중대형 전지는 xEV 위주로 외형성장하며 수익성도 확대될 전망. 하반기에는 자동차 전지 관련 유럽과 미주 고객 향 수주 역시 예상됨. 비록 전자재료는 전방 업황 흐름 상 일부 성장 정체가 발생하겠으나, 3Q22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능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2Q22 실적 사업부 별 주요내용 정리

전지-소형

EV와 전동공구향 원형전지 중심 판매 확대로 매출 증가 및 수익성 제고

- 원형: EV향 중심 매출 증가 지속. 전동공구용은 고출력 수요 증가로 매출 확대
- 파우치: IT 수요 둔화, 하반기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 대기수요로 기존 제품 향 판매 감소

하반기는 모빌리티용 중심의 판매 성장을 전망

- 원형: EV, E-Bike 등 모빌리티 수요 증가로 판매 증가 예상. 향후 수요 증가 예상되는 46 ϕ 원형전지 수요 대응 위해 라인 신설
- 파우치: 하반기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으로 공급 예상

전지-중대형

어려운 경영 환경 속 YoY, QoQ 매출 증가, 수익성 개선

- EV 전지: 주요 고객향 Gen5 등 고부가제품 판매 확대. 스텔란티스 JV, 전고체 파일럿 라인 진행 등 중장기 성장 전략 차질 없이 진행 중
- ESS: 미주향 전력용 판매 확대로 매출 증가. 원소재 가격 상승분의 판가 반영으로 수익성도 개선

하반기는 고부가제품 중심의 판매 성장 전망

- EV 전지: 헝가리 2공장 램프업으로 Gen5 판매 본격화 전망. Gen6 등 차세대 플랫폼 수주 활동의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
- ESS: 고유가, 친환경 정책 확대 트렌드로 신재생 에너지 수요 증가 예상. 에너지 밀도 높이고 원가 낮춘 고부가 신제품 출시 통해 판매 확대 계획

전자재료

고부가제품 중심 판매 확대로 수익성 제고 달성

- 편광필름: 전분기 대비 매출 소폭 감소, 차별화된 제품 판매로 수익성은 유지
- 반도체 소재: 전분기 수준의 매출 유지
- OLED 소재: 신규 플랫폼향 공급 시작되며 매출 증가

하반기는 OLED 소재, 반도체 중심으로 판매 확대 추진

- 편광필름: 고객다변화를 통해 전방 수요 감소 불구 판매 및 수익성 방어 목표
- 반도체 소재: 신제품의 적기 출시로 판매 확대를 추진
- OLED 소재: 주요 고객향 공급 확대와 신규 플랫폼 진입을 지속 추진할 계획

표1 삼성SDI 2Q22 실적 Review

(십억원)	2Q22P	2Q21	(% YoY)	1Q22	(% QoQ)	컨센서스	(% diff.)
매출액	4,740.8	3,334.3	42.2%	4,049.4	17.1%	4,634.1	2.3%
영업이익	429.0	295.2	45.3%	322.3	33.1%	398.6	7.6%
세전이익	528.8	396.1	33.5%	453.9	16.5%	470.4	12.4%
순이익(지배)	391.3	274.8	42.4%	356.6	9.7%	353.0	10.9%
영업이익률 (%)	9.0	8.9		8.0		8.6	

자료: 삼성SDI, 머릿츠증권 리서치센터

삼성SDI 실적설명회 주요 Q&A

Q1 하반기 전반적인 사업 전망은?

A1 - 자동차 전지: 최근 반도체 수급 이슈 완화와 주요 완성차 고객의 EV 신모델 판매가 본격화되며 하반기 견조한 성장세 예상

- ESS: 최근 전력료 급상승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확대 움직임, 에너지 안보 중요성 대두로 전력용 ESS 중심 수요 상승 예상

- 소형전지: 주택경기 둔화로 전동공구 시장 위축 예상 불구 EV, E-Bike 등 모빌리티 수요의 고성장세 예상

- 전자재료 소재: 하반기 전방 수요 둔화 우려되지만 고객 다변화, 신제품 출시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

상황에 맞춰 유연한 제품 믹스로 대응할 계획. 시장에서 당사의 시설 투자 진행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당사는 고객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확실한 수요를 근거하여 투자를 결정 및 집행하고 있음

Q2 공급망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데 삼성SDI의 공급망 관리 전략은?

A2 당사는 권역 별 완결형 SCM 구축을 큰 전략의 방향으로 삼고 업스트림 전반에 있는 모든 파트너사와의 전략적 협업 강화 및 현지 공급 체계를 준비하고 있음. 글로벌 완결형 오퍼레이션을 위해 헝가리의 향후 현지화율을 80% 이상까지 높일 예정. 미주는 양산이 시작되는 2025년까지는 헝가리 수준의 현지화율을 확보할 계획

중요한 원소재에 대해서는 JV, 지분투자 등으로 적극 협력 진행 중. 그외의 자재도 LTA를 통해 장기적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주력. 업스트림 전반에 대한 공급망 다변화·이원화 추진하여 SCM 전반의 리스크에 대비할 것

당사의 메탈 리사이클 전략은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물량 확보 및 ESG 관점에서 중요. 글로벌 전 거점에 리사이클 closed-loop 체계를 갖추기 위해 핵심 파트너사와 협력관계 강화하고 있음

Q3 자동차 전지 매출액 증가의 판매량 증가, 판가 인상, 환율 효과 각각의 기여도는?

A3 2Q22 자동차전지 매출액의 +30% QoQ 성장 중 판매 증가가 약 20% 기여함. 10%는 판가 상승과 환율 상승에 기인함. 손익 측면에서는 환율 상승은 긍정적이었으나 판가 상승분은 원소재 구매 비용 증가분과 상쇄되어 손익 영향은 미미한 수준. Gen5 중심으로 판매량이 확대된 부분이 수익성 측면에서도 가장 크게 기여함

Q4 각국의 친환경 정책 구체화로 전력용 ESS 시장 확대가 전망되는데 삼성SDI의 대응 전략은?

A4 중장기적으로 전력용이 ESS 시장의 메인 시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 원가 경쟁력을 개선하고 안정성을 강화한 고용량 신제품을 하반기 중 양산 및 공급할 예정. 하이니켈 NCA 양극재를 적용해 용량은 약 30% 증가하며, 에너지밀도 향상으로 원가를 15% 수준 절감 가능. 차별화된 소화 시스템

을 통해 안전성 또한 강화. 중장기적으로는 원가 부담이 큰 코발트를 쓰지 않고 망간 비중을 높인 NMX 배터리를 통해 전력용 시장에 적극 대응할 계획

Q5 경쟁사 대비 전지 부문의 수익성이 우위에 있는 배경은?

A5 전기차용은 Gen5, 소형은 전동공구용 고출력 전지 등 고부가제품 중심의 판매 확대가 가장 큰 요인.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와 다양한 신규 소싱처 발굴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한 것도 큰 도움이 됨. 고객 수요를 기반으로 한 높은 가동률 유지와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생산 수율을 개선한 것 또한 수익성 제고에 기여

Q6 하반기 IT 수요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자재료 사업부의 하반기 전망은?

A6 디스플레이의 경우 LCD 패널 고객사는 상반기 재고 축적 수준이 늘어나 하반기 수요 감소 전망. 하지만 OLED는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로 견조한 성장 전망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가격 하락 불구 서버 중심 수요는 지속 증가하여 웨이퍼 투입은 하반기에도 견조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전방 수요가 견조한 반도체, OLED 소재 중심으로 판매 확대 추진하는 한편, 수요 둔화가 예상되는 편광필름은 고객 다변화를 통해 물량을 확보할 계획

Q7 미국 주택 시장 둔화에 따라 전동 공구 수요 우려되는데 하반기 전동공구 시장 전망은?

A7 최근 일반 소비자용 전동공구 중심으로 유통 재고 증가하여 하반기 잔동공구용 전지 수요는 당초 예상 대비 성장세 둔화가 예상됨. 당사는 선두 업체로서 글로벌 상위 고객들과 장기 공급 계약 등 파트너십을 구축함. 고성능 제품 라인업 중심으로 건설용을 비롯한 전문가용 전동공구용 전지 판매에 집중할 계획. 고출력 전지를 채용한 건설용, 야외용 전동공구 전지 수요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성장이 하반기에도 전망됨

Q8 원형전지 내 전동공구 비중 감소, 모빌리티 비중 증가 등 믹스 개선에 따른 수익성 변화는?

A8 일반적으로 전동공구용 고출력 제품이 모빌리티용 중출력 제품 대비 기술적 차별화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음. 하지만 모빌리티는 제품 특성 상 단기 수요 변화에 덜 민감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물량 확보가 용이. 또한 제품 당 셀의 탑재수가 월등히 많아 적은 기종으로 대량 공급 또한 가능하여 판매량 증가 및 이익 개선 기대가 가능. 당사의 EV용 원형 전지도 상반기까지는 공급 초기 단계였지만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물량 증가로 수익성 개선이 전망됨

Q9 46Φ 배터리의 장점과 삼성SDI의 46Φ 배터리 수주 상황 및 양산 계획은?

A9 46Φ 배터리는 기존 원형전지 대비 구경, 높이를 키우며 에너지 용량은 약 5배, 출력은 6배로 높일 수 있어 완성차 업체의 원가 감소를 위한 혁신 기술임. 전지 규격 표준화에 따른 수급 용이성이 부각되며 여러 완성차 업체들이 채용 여부를 검토 중

당사는 46Φ 장점에 더해 안정성을 강화한 설계 컨셉을 추가 개발하고 있으며 당사의 강점인 하이니켈 NCA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업계 최고 수준의 용량, 수명, 급속 충전 성능을 제공할 것. 천안사업장에 46Φ 투자 진행 중이며 복수의 완성차 업체와 고급 논의 진행 중

Q10 하반기 IT 수요 둔화 우려 전망 속 하반기 IT 전지 사업 전망은?

A10 스마트폰 등 IT 제품의 하반기 수요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당사가 주로 공급하는 플래그십 모델이 하반기 출시 예정으로 수요 둔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또한 스마트폰 내 TWS,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수요는 여전히 견조할 것으로 전망. 당사는 성장하는 웨어러블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 확대할 계획

(자료: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 삼성SDI)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